

명의도용 우려가 현실로...구멍 뚫린 카뱅

〈카카오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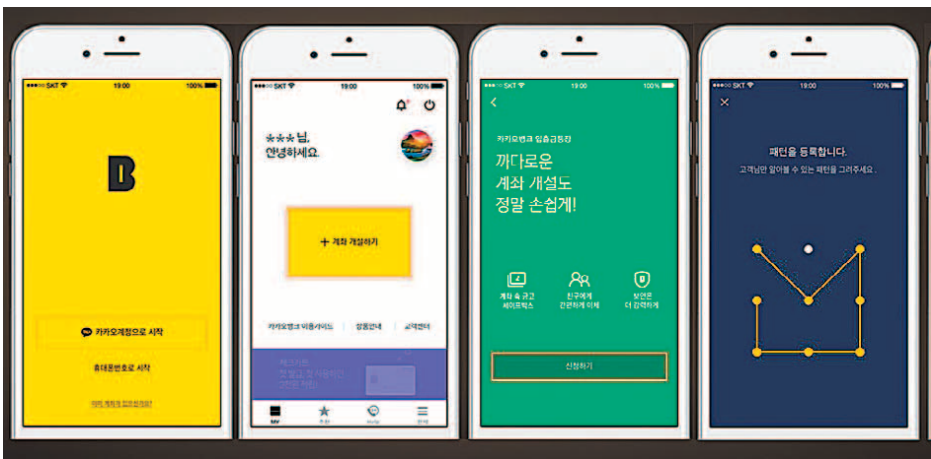
몰래 계좌개설·소액대출 10건 접수
휴대전화 타행 계좌 알면 도용 가능
영상통화 인증 도입 등 예방책 절실



카카오뱅크가 기존 금융권에 비해 차별화된 장점으로 내세운 비대면 본인 인증이 최근 잇따라 문제점을 드러내며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본인 몰래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됐다는 신고가 10건이 접수됐다. 카카오뱅크가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자식과 손자가 부모와 조부모의 이름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명의도용은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본인 인증 방식이 가진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비대면 본인 인증이 허점을 드러내며 명의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출범 전부터 과제로 떠올랐지만 그간 자신감을 피력해온 만큼 이번 사건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카카오뱅크 앱 이미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타행계좌 입금내역(송금 메모)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 제3자가 세 가지 인증을 모두 통과하기는 어렵지만, 가족이 휴대전화와 신분증, 타행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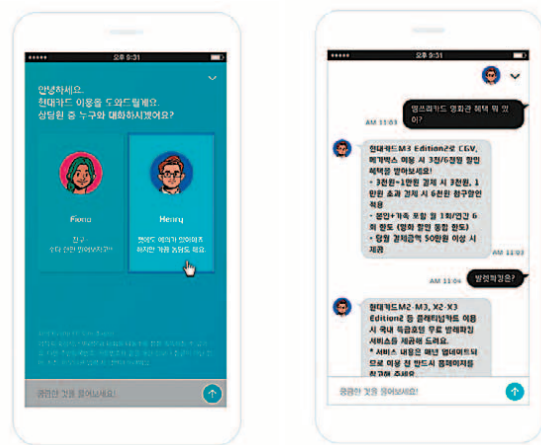
게 본인 모르게 계좌 개설이나 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는 본인 인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분증을 들고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근 가족의 명의도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카카오뱅크도

이런 인증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에서는 아직까지 명의를 도용한 계좌개설 사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명의도용 가능성 여부는 출범 전부터 이슈였다. 7월27일 출범식에서 카카오뱅크 측은 “PC가 아닌 모바일로만 계좌를 만들 수 있어, 계좌 하나당 하나의 스마트폰이 필요해 명의도용 통장을 만드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며 “명의도용 방지 기술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모니터링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안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비록 가족 간의 사례지만 본인인증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측은 “명의도용은 형사처벌 대상인데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가족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추가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예방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금융사기 관련 고객상담 부서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현대카드, 인공지능 챗봇 ‘버디’ 출시 질문자 의도 파악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 도입

현대카드가 인공지능(AI) 챗봇(채팅로봇) 서비스 ‘버디’(사진)를 내놓았다. 버디는 카드 혜택과 맞춤카드 추천은 물론 금융서비스 뿐 아니라 슈퍼콘서트와 현대카드 사用到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담해 준다. 특히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IBM 왓슨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도입해 기존 챗봇과는 차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M3카드 영화관 혜택 뭐 있어?’라는 질문하면 버디는 M포인트 사용부터 플래티넘 할인 혜택 등 현대카드M3 에디션2 상품을 이용할 때 누릴 수 있는 영화관 혜택에 대해 설명해 준다. 또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표현에 숨겨진 의도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기능도 있다.

현대카드 측은 “버디는 현대카드의 디지털에 대한 원칙을 녹여낸 새로운 서비스”라며 “지금도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찾을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상담의 폭과 정확도를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우리은행 ‘웰리치100 은퇴설계콘서트’ 모습(왼쪽)과 NH농협은행의 ‘내 삶의 올백플랜’ 사이트. 주요 시중 은행들의 ‘은퇴자 마케팅’이 한창이다. 우량고객으로 꼽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들을 안정된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진제공 1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주머니 뽕뽕한 퇴직 장년층을 모십니다”

은행들 은퇴자 마케팅 열기

우리는, 금융콘서트·맞춤상담
KB는 인생설계아카데미 개최
NH농협은행엔 전문웹진 오픈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은퇴자 대상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 콘서트나 강연을 실시하고 시니어타운과 협업하거나 웹진을 내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웰리치100 은퇴설계콘서트’를 개최했다. ‘풍요로운 삶과 아름다운 노후’를 주

제로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장년층 300여명을 초청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1대1 전문가 맞춤상담’과 명사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 우리은행 측은 “은퇴 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우리은행 은퇴설계전문가 ‘웰리치100플래너’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은 은퇴를 앞둔 고객을 대상으로 ‘KB플랜라이프 인생설계 아카데미’를, 신한은행이 은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은퇴교실’을 각각 개최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단자인 시니어 타운과 협업하는 경우도 있다. KEB하나은행은 프리미엄 시니어타운 ‘더 클래식500’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거, 요양, 후원 지원부터 사후 상속, 장묘, 기부에 이르는 포괄적인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클래식500과 함께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며 시니어 사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NH농협은행은 은퇴설계전문지인 ‘올백(All 100)플랜’을 웹진 형태로 구성한 ‘내 삶의 올백플랜’ 사이트를 열었다. ‘가꾸다·썩뜨다·피어나다·열리다·알리다’의 5가지 섹션으로 구성했고, 은퇴준비 관련 금융정보는 물론 귀농·귀촌 안내 등 시니어라이프를 위한 다양한 소식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처럼 시중 은행들이 앞다투어 ‘은퇴자 고객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 최대 우량고객인 ‘베이비붐’ 세대가 이 때

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54~62세)를 가리키는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14%(733만명)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보유 자산이 많은 뿐 아니라 이들이 주로 가입한 금융상품이 자산관리(WM) 상품으로 운용기간이 길다.

특히 젊은 고객층을 두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은행원과의 전통적인 대면 접촉을 선호하는 시니어 세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고객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퇴시기에 접어들면 베이비붐 세대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길 경우 자산관리 부문 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곤지암리조트 동굴 와인 레스토랑 라그로타

라그로타, 와인스펙테이터 상 수상

10만 병 보관 와인 셀러와 800종 와인 리스트 보유

경기도 광주 서브원 곤지암리조트의 동굴 와인 레스토랑 라그로타가 세계적인 와인 전문가 와인스펙테이터의 ‘2017 와인 레스토랑 어워드’에서 5년 연속 ‘베스트 오브 어워드 오브 엑셀런스’(2 glassese)에 선정됐다.

와인의 미술관 가이드로 불리는 와인스펙테이터의 ‘와인 레스토랑 어워드’는 매년 전 세계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와인 레스토랑을 선정한다. 곤지암 리조트 라그로타가 수상한 ‘베스트 오브 어워드 오브 엑셀런스’는 세계 1168개의 레스토랑만이 선정되는 것으로 국내 호텔·리조트 레스토랑에서 5년 연속 수상은 라그로타가 유일하다.

라그로타는 국내 최대인 10만병의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와인 셀러와 800여종의 와인 리스트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빈티지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라그로타는 와인스펙테이터 수상을 맞아 선술용 라그로타 스페셜 와인 햄퍼를 9월 말까지 판매한다. 글로셋과 펜폴즈 등 호주 대표 와이너리의 와인 2병으로 구성된 호주 프리미엄 햄퍼와 보르도와 부르그뉴 대표 와인 2병으로 구성된 프랑스 명작 햄퍼 등 두 가지다.

김재범 기자

버스로 돌아보는 제주 중산간의 매력

꽃자왈·동백동산 등 9월 추천 명소 10선
동광·대천 환승센터서 순환 버스 운행



‘제주의 진짜 매력은 중산간.’
제주관광공사는 버스체계를 새로 개편하면서 전보다 훨씬 관광 편리성이 높아진 제주의 9월 관광테마를 ‘제주의 속살, 중산간을 탐험하다’로 정했다.

중산간에서 즐길 수 있는 트레킹, 마을, 관광지, 자연, 음식 등 5가지 테마로 지역 명소 10곳을 소개했다.

우선 환경면 해발 120m에 위치한 ‘예술인 마을’ 저지리가 이름을 올렸다. 예술인들에게 마을을 개방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의 현대미술관, 야외전시장, 갤러리 등이 투어의 핵심이다. 아름다운 숲 전국 대상을 받은 저지마을에 오르면 마을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다.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아름답다면,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실망감은 다소 상쇄된다. 제주의 목축문화와 예쁜 길을 볼 수 있는 가시리 마을도 있다. 마을 주변 오토와 목장길을 연결해 만든 20km의 갑파장길이 매력이다. 이곳의 조랑말체험공원에서는 조랑말박물관, 따라비 승마장 등 말과 관련된 체험을 할 수도 있다.

환상숲 꽃자왈은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자연 생태공원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 정시마다 시작되는 숲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꽃자왈의 현상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많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동백동산은 중산간 지역의 원형을 그대로 잘 보존한 5km의 꽃자왈이다. 습지를 품은 꽃자왈은 제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절경이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자연환경해설사의 해설을 진행한다.

제주의 중산간은 대중교통으로는 찾아가

기 어려웠는데, 최근 버스체계가 개편되면서 이 지역 관광지를 돌아보는 순환버스가 생겼다. 동광환승센터에서는 서부지역 관광지 순환버스를 탈 수 있고, 대천환승센터에서는 동부지역 중산간을 돌아보는 순환버스가 출발한다.

이밖에 이효리의 신곡 ‘서울’과 트와이스의 ‘시그널’ 뮤직비디오에 등장했던 연못을 품은 신비로운 서쪽 언덕 금오름, 오토에 있는 샘이 바다를 향해 흐르지 않고 한라산 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스세미옴과 송당목장, 둘로 이뤄진 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머채왓길과 제주에서 세 번째로 긴 서중천, 지역 별미인 말고기, 산채비빔밥도 9월의 관광 10선에 올랐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금오름은 오토 정상에 물이 고여 있는 왕벚라 불리는 화구호로 이효리 ‘서울’과 트와이스 ‘시그널’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했다. 사진제공 1 제주관광공사



NH농협은행, 지역아동센터 초청 쌀요리 체험행사

NH농협은행이 최근 서울 중구 소재 쌀박물관에서 지역아동센터 ‘둥지’ 소속 학생 초청 쌀요리체험 및 농업박물관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쌀로 지은 밥이 들어간 치킨 부리또를 직접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요리체험 후에는 농업박물관으로 이동하여 농업발달사 해설을 듣고 농가주택·농경민속·전통장터를 관람했다.

정정욱 기자

내일투어, 브랜드 12년 연속 1위 기념 감사 이벤트 실시

개별자유여행 전문 내일투어는 소비자 선호 개별여행 브랜드 12년 연속 1위를 기념하여 대규모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마카오 패밀리 급가기 원정대’에서는 총 다섯 가족을 모집해 가족당 최대 240만원 상당의 마카오 개별자유여행 상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와 만4세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2~3인 이상 가족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지원 포스트를 작성한 후 9월3일까지 내일투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10월10일, 3박5일의 일정으로 마카오를 여행하게 된다. 개별자유여행 ‘급가기’, 개별패키지여행 ‘우리만’, 골프 ‘GMT’, 허니문 ‘자기야’, 배낭여행 ‘Out of Korea’ 등은 브랜드 별로 할인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겨울 개별자유여행 급가기 상품을 일찍 예약한 얼리버드 고객에게도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